

望形態에 대한 연구

김용찬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Visible Diagnosis of Appearance

Yong Chan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This study was written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of visible diagnosis of appearance(形). Visible diagnosis of appearance(形) is a very important factor of diagnosis and a first step of visible diagnosis. appearance(形) is closely connection with spirit(神), so is house of spirit(神). If we make a visible diagnosis of appearance(形), we know the prosperousness of energy and the relative seriousness of an illness. Spirit(神) is understood by appearances and movements of patient, and influenced by seasons, lands, human's relationship and the grade of age. By visible diagnosis of appearance(形), we can conclud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spirit(神). As comparing spirit(神) with appearance(形), we can decide good or bad prognoses. One man's own appearance(形) is determined by the five human type(五形人). There are very various points of changing form. As divided into principal groups, there are three main groups, that is, sky(天), earth(地) and man(人). The age and sex belong to the factor of sky(天), a direc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ground(地形) belong to the factor of earth(地), the five human type(五形人) and white fatness(肥白) and black emaciation(黑瘦) belong to the factor of man(人).

Key words : appearance(形), visible diagnosis, five human type(五形人)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神이요, 진단함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여도 神이요, 치료함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여도 대답은 神이다.

이렇듯 神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사람의 출생에 있어서도 兩精相搏하여 合而成形 謂之神이라 하였다. 父精母血이 合하여져 形을 이룬 것을 神이라고 한 것이다. 神은 어떤 형체가 없이 육체에 깃드는 것이다. 形이라는 것은 神의 體이고, 神이라는 것은 形의 用이다. 神이 없으면 形은 活할 수 없고, 形이 없으면 神은 生할 수 없다. 이렇듯 神은 形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形은 神이 없다면 그 존재가치를 알지 못한다.

診斷의 첫번째는 물론 神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神을 직접 볼 수 있는 해안을 갖지 못했다면 그 神이 살고 있는 집인 形을 통하여 神의 상태를 파악하고, 순간순간 비쳐나오는 氣色을

통하여 神의 변화를 궁리하며, 살아 움직이는 동작 속에서 神의 쓰임을 엿보아야 한다.

인체의 形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물이다. 先天의 품부받은 것에 후천적으로 섭취한 것을 더하여 나의 마음이 가는데로 계속 재구성을 한다. 품부받은 것은 先天之精이요, 후천적으로 섭취한 것은 呼吸하여 들이는 天氣와 五味의 精微요, 나의 마음은 性情일 것이다. 先天之精은 불변의 것이요, 후천적인 섭취와 나의 마음은 집착과 욕심으로 인해 바뀌기에 쉽지 않다. 그렇기에 形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망진에 있어 기준이 된다. 진단에서는 지금까지의 精血의 상태 및 기본 틀은 形으로 파악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은 氣色으로 파악한다.

形은 五藏六府의 상태가 經絡을 통하여 表出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形을 살피면 五藏六府와 經絡의 好惡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타고난 요소에 따른 영향이 있으니 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形을 살필 수가 없다.

望診을 연구하던 중,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의 타고난 특성의 상태를 숙지해야 비로소 形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견이 있어 발표하는 바이다.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3-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5/10/18 · 수정 : 2005/11/15 · 채택 : 2005/12/05

본 론

1. 形氣

1) 形의 중요성

老子가 말하기를 내가 大患이 있게 되는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나에게 어찌患이 있겠는가¹⁾ 라고 하였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形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形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니 사람이 살아가는 首務이다. 形의 뜻은 매우 미묘하니 言動視聽, 俊醜美惡, 勇怯愚智, 死生安否 등이 形이다. 人事의 교류는 形으로써 교류하고 功業의 建은 形으로써 建하니 이러한 形의 뜻을 알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形을 養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情志로써 府舍의 形을 상하거나 勞役으로 筋骨의 形을 傷하게 한다. 안으로 形을 傷하면 神氣가 消磨하게 되고, 밖으로 形을 상하면 지체가 偏廢하게 되어 심하면 肌肉이 다 없어지게 되니 그 形을 알 수 있으며 形이 이미 패했다면 그 命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養生을 잘하는 자는 먼저 形을 治하면서 神明을 治하여서 神明의 宅을 삼고, 治病을 잘하는 자는 形으로써 興復의 기반을 삼는다²⁾.

形은 陰으로써 말을 한 것이나 실제로는 精血이다. 外邪를 제거하고자 하면 精血을 따르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고, 中氣를 固하게 하고자 하면 精血을 따르지 않고서 쌓아 强하게 할 수 없으며, 水中에 眞氣가 있고 火중에 眞液이 있더라도 精血을 따르지 않으면 升降을 할 수 없고, 脾는 五藏의 根本이고 腎은 五藏의 化源이지만 精血을 따르지 않으면 灌溉할 수 없다. 그러므로 精血은 形이고 形은 精血이다.

天一은 水를 生하니 水는 形의 祖이다. 病을 치료하고자 하면 반드시 形體를 위주로 하고, 形을 治하는 자는 반드시 精血을 우선시 해야한다³⁾.

2) 形神

形이라는 것은 神의 體이고, 神이라는 것은 形의 用이다. 神이 없으면 形은 活할 수 없고, 形이 없으면 神은 生할 수 없다. 心藏神 肺藏氣 肝藏血 脾藏肉 腎藏志하여 이로 成形하여 志意가 通하고 骨髓로 연결되면 身形·五臟을 이룬다⁴⁾. 그러므로 形의 肥瘦, 營衛血氣의 盛衰는 모두 人神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神을 기르고자 하는 자는 그 形을 기르는데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⁵⁾. 目光精彩하고 言語淸亮하며 神思가 亂하지 않고 肌肉이 削하지 않으며 氣息은 평상시와 같고 大小便이 脫하지 않으면 脈에 의심이 가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形에 神이 있기 때문이다. 目暗·睛迷하고 形羸色敗하고 喘急하고 泄瀉가 不止하며 또는 肉의 大肉이 이미 脫했거나 또는 兩手로 옷을 찾고 침상을 더듬거나 또는 邪는 없는데 언어가 失倫하였거나 또는 病이 없는데 허공에서 귀신을 보거나 또는 病이 脹滿하여 補瀉를 모

두 할 수 없거나 또는 寒熱과 溫涼을 모두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暴病에 沈迷煩躁·昏不知人하거나 또는 一時에 졸도하였는데 眼閉·口開·手撒·遺尿하면 脈에 凶候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死하니 形에서 神이 去하였기 때문이다⁶⁾.

3) 形氣

반드시 形의 肥瘦를 측정해야 하니 肥瘦는 氣의 虛實을 謂한다. 形氣가 相得한 자는 生하고 不調한 자는 病이며, 形肉이 이미 脫하면 九候가 비록 고르더라도 죽는다⁷⁾.

形氣라는 것에서 氣는 口鼻의 氣息을 말하고, 形은 皮膚筋骨 血脈을 말한다. 形이 이기는 것은 有餘이고, 살이 마른 것은 不足이다. 氣는 口鼻의 氣가 예전처럼 勞役하면 有餘이고, 喘息·氣促·氣短하거나 혹은 숨쉬기에 부족한 것은 不足이다. 그러므로 形氣는 身形 중의 氣血이다⁸⁾.

사람의 大體는 形이고 形을 채우는 것은 氣이다. 形이 氣를 이기는 자는 요절하니 肥白한 것이다. 氣가 形을 이기는 자는 장수하니 黑하고 살이 마르며 神이 있는 것이다. 形盛한 것은 有餘가 되니 邪氣가 實하다. 살이 마른 것은 不足이 되니 正氣가 虛하다⁹⁾. 肥瘦에 대한 내용은 뒤의 체질부분에 상술하였다.

『靈樞·壽夭剛柔』에서 “形과 氣가 서로 맞으면 장수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요절한다¹⁰⁾” 하였으니 皮와 肉이 서로 싸여져 있으면 장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절한다. 氣血 經絡이 形을 勝하면 장수하고 形을 勝하지 못하면 요절한다. 사람의 형체, 자태, 성격, 체질 등의 “形”이 機體 氣血의 운행, 臟腑 기능의 협조와 일치하면 相任으로 장수의 象이 되고, 상응하지 못하면 요절한다. 肉은 皮의 裏에 있고, 皮는 肉의 表가 된다. 肉이 堅하고 皮가 固한 것이 相果한 것이고, 肉이 무르고 皮가 거친 것은 相果하지 못한 것이다. 相果者는 氣가 축적되므로 장수하고, 相果하지 못한 자는 氣가 쉽게 소실되므로 요절한다. 形을 세우고 氣를 정하여 病人의 生死를 결정한다¹¹⁾.

骨과 氣의 좋고 나쁜 상태는 살가죽의 溫冷으로 분별한다. 살가죽과 色을 살피려면 살의 근본을 알아야 하고, 살과 氣를 살피려면 骨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骨이 많으면 살결이 윤택하고, 살결이 윤택하면 살가죽이 반질거리며, 살가죽이 반질거리면 살빛이 곱고, 살빛이 고우면 氣가 골육과 皮毛 밖으로 관통된다. 그러므로 氣를 얻으면 骨이 많고 살가죽이 따뜻하며, 氣가 손상되면 骨이 고갈되어 터럭까지도 윤기가 없이 어둡다¹²⁾.

4) 形體의 強弱

骨節은 山嶽과 같이 험준하고 우뚝 솟고, 金石과 같이 견장하고 단단하여 飽滿하고 充隆하여야지, 깎이고 작고 납작하고 뒤집히고 치우치고 드러나서는 안된다. 돌이 玉을 써서 감추면 山에 광채가 나고 모래가 金을 품고 있으면 川이 반드시 아름답듯이, 骨이 안에 있더라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骨을 헤아리는

1) 王弼 著 / 임채우 譯, 왕필의 노자, 서울, 예문서원, 2000, p. 77.
2) 김영남 譯, 국역 경약전서, 서울, 一中社, 1992, p. 60.
3) 김영남 譯, 국역 경약전서, 서울, 一中社, 1992, p. 61.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216.
5)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薈萃, 中國, 重慶出版社, 1988, p. 165.

6) 김영남 譯, 국역 경약전서, 서울, 一中社, 1992, pp. 51-52.
7)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薈萃, 中國, 重慶出版社, 1988, p. 164.
8) 陳夢雷·蔣廷錫 編著,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대성출판사, 1992, p. 608.
9) 陳夢雷·蔣廷錫 編著,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대성출판사, 1992, p. 615.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57.
11)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21-22.
12) 김의철, 觀相高典, 서울, 동반인, 1999, p. 376.

法道가 이에 있다¹³⁾.

天庭·厥中·鼻端이 높게 일어나 곧게 평평하고, 顴·頰·蕃蔽¹⁴⁾와 耳門이 모두 크고 넓고 풍릉하여 10보 거리에서 보이던 骨格이 明顯한 것이니 병이 없고 장수한다. 만약 天庭·顴骨·頰·耳門 등의 骨格이 낮고 肌肉이 薄하면 骨格이 陷弱한 것이니, 病에 걸리고 오래 살지 못한다¹⁵⁾.

骨格은 一世의 榮枯를 定하고 氣色은 行年의 休咎를 살피니 氣色보다 骨格이 우선된다. 특정부위의 骨格이 약하여 陷沒하였으면 病邪의 침입을 받기가 쉬워 병을 면하기 어렵고, 骨格에 缺陷이 없다면 비록 氣色이 변하여 단지 生旺을 하고 乘襲하여 克賊함이 없다면 병이 심하더라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다¹⁶⁾. 陽의 기전을 타고난 사람은 언제나 활동적이고 정신면에서도 흥분하기를 잘하므로 항상 그 에너지를 消耗하기 때문에 瘦瘠해지고, 陰의 기전을 타고난 사람은 활동을 싫어하고 안정적이며 그 정신면에서도 침체될 때가 많으므로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豐滿해진다. 그러므로 뼈가 많고 肉이 적은 사람은 陽氣가 有餘하나 陰血이 不足하기 쉽고, 肉이 많고 뼈가 적은 사람은 陰血은 풍부하지만 陽氣가 不足하기 쉽다¹⁷⁾.

사람의 形은 長은 短에 미치지 못하고, 大는 小에 미치지 못하며, 肥는 瘦에 미치지 못한다. 사람의 色은 白은 黑에 미치지 못하고, 嫩은 蒼에 미치지 못하며, 薄은 厚에 미치지 못한다. 하물며 肥人은 濕이 많고, 瘦人은 火가 많다. 白한 자는 肺氣가 虛하고, 黑한 자는 腎氣가 足하다. 形色이 이미 다르면 臟腑도 역시 다르다. 外證이 비록 같더라도 治法은 구별이 있다¹⁸⁾.

剛強한 사람은 形氣가 有餘하고, 柔弱한 사람은 形氣가 不足하며, 肥한 사람은 항상 多血少氣하고, 瘦한 사람은 항상 多氣少血하다.

이를 정리하면 體強은 骨格粗大·胸廓寬厚·肌肉充實·皮膚潤澤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內臟이 堅實하고 氣血이 旺盛한 것으로, 抗病力이 強하여 病에 걸렸다고 해도 예후가 양호하다. 體弱은 骨格細小·胸廓狹窄·肌肉消瘦·皮膚枯槁 등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內臟이 脆弱하고 氣血이 不足한 것으로 抗病力이 弱하여 病에 걸리면 예후가 불량하다¹⁹⁾.

相學에서는 形의 풍족하고 부족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形이 풍족한 사람은 정수리가 둥글고 두터웁고, 배와 등이 볼록하며, 이마가 넓고 입이 네모지고, 입술이 붉고 치아가 희다. 귀는 둥글어 바퀴 모양을 이루고, 코가 곧고 담낭처럼 생겼으며, 눈에 흑백이 분명하다. 또한 눈썹이 수려하고 길며, 上膊이 넓고 배꼽이 깊으며, 앞가슴이 평평하고 넓으며, 배가 둥글고 아래로 처져있으며, 목소리가 크고 낭랑하다. 걸음걸이와 앉은 모습은 단정하고, 五岳이 서로 흘러들듯 솟아 있으며, 三停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살에 윤기가 흐르고 뼈가 가늘며, 손이 길고 발이 네모지다. 멀리서 보면 높고 크게 나온듯하고, 자세히 보면 딱 맞춰서 자란듯하다²⁰⁾.

形이 不足한 사람은 정수리가 뾰족하고 작으며(뇌수조직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음), 어깨가 좁고 비스듬하며(목과 팔 등의 발육상태가 나쁨), 허리와 옆구리가 가늘고 부실하며(흉곽 내부기관 발육과 착상상태가 불량), 팔꿈치 관절이 짧고 좁다(팔의 발육이 불량), 손바닥은 얇고 손가락은 부실하며(五形 각 요소의 배합이 고르지 않고 오장육부가 불량), 입술은 뒤집혀 있고 이마가 납작하며(체내의 심장과 신장조직의 발육상태가 불량), 들창코에 귀가 뒤집혀 있고(호흡기 계통과 신장계통의 발육상태가 불량), 허리가 낮고 가슴이 움푹 꺼져 있다(오장육부의 발육과 착상상태가 불량). 눈썹은 하나는 휘고 하나는 높으며(肝과 肺의 강약이 고르지 않고 부모로부터의 유전도 균형을 이루지 못함), 양쪽 눈 중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며(뇌조직 좌우 양쪽의 발육상태가 고르지 않음), 눈동자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오장육부의 발육상태가 고르지 않음), 양관골도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며(골격 계통의 발육상태가 고르지 않음), 양손 중 한쪽에만 주름이 있고(내분비 계통의 발육상태가 고르지 않음), 눈을 뜨고 자며(뇌신경계통의 발육이상),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며(체내 성호르몬의 균형이상), 이는 누렁고 잇몸이 드러나 있으며(골격계통과 신장조직의 발육상태 불량), 코가 뾰족하고 비틀려 있으며(체내 오장육부의 발육상태 불량), 머리가 대머리이다(혈액순환 계통의 발육상태 불량).

눈은 꼭 들어가서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내부기관의 착상상태가 불량, 특히 신장에 氣가 不足), 걷는 모습이 바르지 않으며(내부 기관의 좌우조직과 신경의 분포에 균형이상), 생기가 부족하고(내부기관의 활동이 확실하지 않고 정상적인 작동이 안됨), 머리는 작고 목이 크며(뇌조직과 오장육부의 발달이 서로 맞지 않음),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길다(내부기관의 발육상태와 하지의 발육상태가 맞지 않음)²¹⁾.

2. 天地人에 따른 차이

1) 시간(天)

사람은 환갑 전에는 陽에 속하고 환갑이 지나면 陰에 속하므로, 소년은 정신을 취하여 부귀를 논하고 노인은 혈기를 취하여 영화를 삼되 그 부위의 골격에 대한 풍영하고 결합된 것을 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四餘가 있음이니, 毛鬚은 血의 精이요, 손톱은 筋의 精이요, 齒는 骨의 精이요, 色은 氣의 精이며, 神이 이 모든 여분의 精이다²²⁾.

연령이 다르면 서로 다른 한계성을 갖는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이르기를 “여자는 7세가 되면 腎氣가 차오르기 시작하여 치아가 새롭게 나고 모발이 길게 자라고, 14세가 되면 天癸가 이르고 任脈이 순조롭게 통하여 太衝脈이 충만해져서 월경이 주기적으로 도래하여 생식 능력을 갖게 되며, 21세가 되면 腎氣가

13) 陳淡榮,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p. 65-66.

14) 蕃蔽: 얼굴의 주변을 이루는 뺨과 턱의 윤곽을 이른다. 『類經』에서는 “蕃蔽者 屏蔽四旁 卽蕃蔭之義”라고 하였다.

15) 윤창열·김응진·김정규, 懸壺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 37.

16) 이정래, 太韓醫學全集(一), 서울, 제일문화사, 1989, p. 695.

17) 이정래, 太韓醫學全集(一), 서울, 제일문화사, 1989, pp. 728-729.

18)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萃, 中國, 重慶出版社, 1988, pp. 164-165.

19) 이봉교·박영배·김태희, 漢方診斷學, 서울, 성보사, 1992, p. 51.

20) 오현리, 정통오행상법보감, 서울, 동화사, 2001, pp. 147-148.

21) 오현리, 정통오행상법보감, 서울, 동화사, 2001, pp. 148-149.

22) 김의철, 觀相高典, 서울, 동반인, 1999, p. 377.

충만해져서 眞牙가 나고 치아의 성장이 극에 이르게 되고, 28세가 되면 뼈와 근육이 견실해지고 모발이 풍성하게 자라고 신체가 건장해지며, 35세가 되면 陽明脈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여 얼굴이 초취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42세가 되면 三陽脈의 氣血이 쇠퇴하여 얼굴이 초취해지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며, 49세가 되면 任脈이 공허해지고 太衝脈의 氣血이 쇠퇴하여 天癸가 고갈되고 월경이 통하지 않으며 형체가 노쇠해져 생식 능력이 없어진다²³⁾.” 라고 하여 여성의 성장 발육과 생리 과정에 대해 경계를 짓고 각 단계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남자는 8세가 되면 腎氣가 차오르기 시작하여 모발이 길게 자라고 치아가 새롭게 나고, 16세가 되면 腎氣가 왕성해져 天癸가 이르고 精氣가 체내에 충만하여 정액이 넘쳐흐르므로 남자가 화합하면 자녀를 얻을 수 있으며, 24세가 되면 腎氣가 고르게 튼튼해져서 근육과 뼈가 단단해지고 眞牙가 나오고 치아의 성장이 극에 이르고, 32세가 되면 근육과 뼈가 융성하여 肌肉 역시 풍만하여 튼튼해지며, 40세가 되면 腎氣가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건조해지고, 48세가 되면 상부의 陽氣가 점점 고갈되어 얼굴이 초취해지고 귀밑머리가 반백이 되며, 56세가 되면 肝氣가 쇠약해져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天癸가 고갈되어 精氣가 부족해지고 腎臟이 약해지고 형체가 노쇠해지고, 64세가 되면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진다²⁴⁾.” 하여 전형적인 남성의 성장발육 특징을 설명하였다²⁵⁾.

사람에게는 老幼少壯이 구분이 있고 身體에는 強弱盛衰의 구별이 있다. 先後天의 稟賦·調養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長壽하면서 身體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늙기도 전에 빨리 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지만 신체가 약한 사람도 있으며 아직 어리고 작지만 신체가 강한 사람이 있다.

2) 공간(地)

(1) 방위에 따른 인체의 특징

사람이 天地의 안에 살고 山川의 가운데 있으니, 각각 그 방위를 따라서 형체와 성질이 같지 않다.

① 東

東方은 川谷이 흘러 빠지는 곳이고 해와 달이 뜨는 곳이다. 그 사람의 머리가 작고 형체가 예리하니 목이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을 상징한다²⁶⁾. 그곳에 사는 사람은 兪形으로서 머리가 작고 코가 크며 입이 크고, 딱 바라지고 올라간 어깨에 발부리로 걷는다. 靨는 눈에 통하고 筋氣가 속한다. 蒼色은 肝이 主하고 長大하고 일찍 알지만 장수하지는 못한다²⁷⁾.

東夷 사람은 그 형체가 가늘고 길며, 눈썹은 세워지고 눈이 길며, 의관도 또한 좁고 긴 것을 숭상한다. 고구려 사람은 그 冠이 높고 좁으며, 그 위에 새의 깃털을 더하여 나뭇가지를 상징한다. 눈이 긴데, 눈은 肝을 주관하고, 肝은 木이기 때문에 가늘고

긴 것이니, 모두 木을 상징한 것이다²⁸⁾.

② 西

西方은 땅이 높고 물이 흘러나오며 해와 달이 지는 곳이니, 그 사람의 얼굴에 털이 많은 것은 산에 초목이 많은 것을 상징한다²⁹⁾. 그곳에 사는 사람은 얼굴이 네모지고, 등이 굽었으며 목이 길고 몸을 뒤로 젖히고 걷는다. 靨는 코에 통하고 皮革이 속한다. 白色은 肺를 主하고 용감하지만 인자하지 못하다³⁰⁾.

西戎 사람은 눈이 깊고 코가 높으며, 웃은 입지만 관은 쓰지 않는다. 코는 肺를 주관하고, 肺는 金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다. 눈은 肝에 해당하고 肝은 木에 속한다. 木은 金이 깎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깊은 것이다. 또 金은 마름질하고 자르는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털이 짧고 관을 안 쓰는 것이다³¹⁾.

③ 南

남쪽은 지극히 따스하니, 남방사람의 입이 큰 것은 기운이 늘어지는 것을 상징한다³²⁾. 南方은 陽氣가 모이는 곳이며 더위와 습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脣形兪上으로 입이 크고 눈은 찢어져서 길다. 靨는 귀에 통하고 血脈이 속한다. 赤色은 心을 主하고 일찍 건장해지지만 요절한다³³⁾.

南蠻 사람은 짧고 작으며 가볍고 골이 졌으며, 입이 튀어나왔고 털이 적으며, 의복 또한 가볍고 짧은 것을 숭상한다. 입이 튀어나온 것은 입과 人中은 心을 주관하고, 心은 火이니, 火는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높게 타오른다. 그래서 털이 적은 것이다³⁴⁾.

④ 北

北方은 지극히 차니, 그 사람의 목이 짧은 것은 기운이 급하고 오그라드는 것을 상징한다³⁵⁾. 北方은 어둡고 밝지 못하며 하늘이 닫히는 곳이고, 얼음이 쌓이는 곳이며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翽形으로 목이 짧고 어깨가 넓으며 꿈무늬가 내려갔다. 靨는 음부에 통하고 骨幹이 속한다. 黑色은 腎을 主한다. 어리석지만 장수한다³⁶⁾.

北狄 사람이 顛骨이 높고 산발을 하며 옷이 긴 것은 顛骨은 腎을 주관하고, 腎은 水이기 때문에 顛骨이 높은 것이다. 산발을 한 것은, 물의 흐름이 자유분방한 것을 상징한 것이며, 옷이 긴 것 또한 물이 길게 흐름을 상징한 것이다³⁷⁾.

⑤ 中央

중앙은 사방으로 통하고 비와 이슬이 오게 되니, 그 사람의 얼굴이 큰 것은 土가 평평하고 넓음을 상징한 것이다³⁸⁾. 中央은 사방에 통하고 風氣가 통하는 곳으로서 雨露가 모이는 곳이다. 그곳의 사람은 얼굴이 크고 턱이 짧으며 수염이 아름답고 보기 싫을 만큼 살찼다. 靨는 입에 통하고 膚肉이 속한다. 黃色은 胃에 속한다. 지혜롭고 聖스러우며 다스리기 좋아한다³⁹⁾.

28)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p. 558-559.

29)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 560.

30) 劉安 編著 / 안길환 編譯, 淮南子(上), 서울, 명문당, 2001, pp. 201-202.

31)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p. 558-559.

32)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 560.

33) 劉安 編著 / 안길환 編譯, 淮南子(上), 서울, 명문당, 2001, pp. 201-202.

34)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p. 558-559.

35)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 560.

36) 劉安 編著 / 안길환 編譯, 淮南子(上), 서울, 명문당, 2001, pp. 201-202.

37)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p. 558-559.

38)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 560.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11.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 11.

25)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31-32.

26)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우학당, 1998, p. 560.

27) 劉安 編著 / 안길환 編譯, 淮南子(上), 서울, 명문당, 2001, pp. 201-202.

中夏(중국) 사람의 용모가 평평하게 정돈된 것은, 토지가 평평하고 조화로운 것을 상징한다. 의관과 수레와 옷이 五色을 갖춘 것은 土의 德이 나머지 四行을 포함함을 상징한 것이다⁴⁰⁾.

(2) 地形·地勢에 따른 인체의 특징

토지는 각각 그 땅에 유사한 것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山氣가 있는 곳에는 남자가 많고, 澤氣가 있는 곳에는 여자가 많다. 水氣가 있는 곳에는 嗜者(병어리)가 많고, 風氣가 있는 곳에는 鬻者(귀머거리)가 많다. 林氣가 있는 곳에는 癡者(폐인)가 많고, 木氣가 있는 곳에는 僞者(곱사등)가 많다. 濕氣가 있는 곳에는 植者(각기)가 많고, 石氣가 있는 곳에는 힘센 자가 많으며, 힘준한 氣가 있는 곳에는 癯者(병어리)가 많다. 暑氣가 있는 곳에는 夭折하는 자가 많고, 寒氣가 있는 곳에는 장수하는 자가 많다. 谷氣가 있는 곳에는 신체가 마비되는 자가 많고, 丘氣가 있는 곳에는 疔者(절름발이)가 많다. 衍의 氣가 있는 곳에는 仁者가 많고, 陵의 氣가 있는 곳에는 強欲한 자가 많다. 輕土인 곳에는 예리한 자가 많고, 重土인 곳에는 遲鈍한 자가 많다. 清流 가장자리의 사람은 목소리가 작고, 濁流 가장자리의 사람은 목소리가 크다. 急流 가장자리의 사람은 경망하며, 遲流 가장자리의 사람은 묵직하다. 中土에서는 聖인이 많이 배출된다.

단단한 땅에서는 사람들이 剛毅해지고 약한 땅에서는 사람들이 나약해진다. 거친 땅에서는 사람들이 대범해지고 모래땅에서는 사람들이 섬세해진다. 비옥한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척박한 땅에서는 사람들이 추해진다⁴¹⁾.

3) 體質(人)

(1) 體質五行分類

무릇 사람이 水에서 精을 받아 坎卦를 이루고, 火에서 氣를 稟하여 離卦를 이룬다. 精氣가 습한 후에 神이 生하니, 神이 生한 후에 形이 완전해진다. 이로 안에서 완전한 자는 반드시 밖에서도 완전하다는 것을 아니 그 후 얼마 안되어 生한다. 아이부터 장정까지 金·木·水·火·土의 形이 있다. 사람은 五行의 生을 稟하고, 天地의 和를 따르며, 天地의 祿을 먹음에 일찌기 五行의 취한 바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五行의 形을 分別하고 五行의 性이 필요하다⁴²⁾.

① 木形之人

피부색이 푸르고, 頭部가 비교적 작고, 面部가 비교적 길고, 肩部가 넓고, 背部가 평평하면서 곧고, 체격이 작고, 四肢手足이 민첩하다. 그 性格과 行爲 특징은 智力이 비교적 발달하고, 체력이 비교적 부족하고, 思考를 많이 하여 憂慮에 쉽게 상한다. 『醫宗金鑑·四診心法要訣』에서 총결하면 “木形之人은 그 色이 靑색에 합하고, 髭鬚과 같은 윤택함이 귀하다. 身直은 나무의 줄기의 곧음을 닮은 것이고, 五小는 頭小·手足小를 이룸이니 나무의 가지끝을 닮은 것이다. 五瘦五長은 몸과 사지가 나무의 가지가 가늘고 긴것을 닮은 것이다. 多才는 나무의 쓰임새로, 깎아서 목재를 이루는 것을 닮은 것이다. 多才한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근심이 있다. 多憂한 것은 나무의 성질이 스스로 고요하지 못하는 것

을 닮은 것이다. 多憂한 사람은 반드시 일 때문에 근심한다. 만약 形質이 연약하고 구부러지고 짧으면, 모두 좋은 목재가 아니다⁴³⁾.”이다. 木形之人은 가을·겨울에 쉽게 사기에 감촉되고, 발병이 용이하다. 봄, 여름에는 신체의 상황이 비교적 좋다. 즉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이른바 “봄·여름에 능하되, 가을·겨울에는 능하지 아니하니, 감촉되면 病이 발생한다.”의 뜻이다⁴⁴⁾.

木은 長을 주하니, 五藏의 氣色이 혼잡하지 않음을 얻으면 精神이 혼잡하지 않다. 그 形이 뽑은 듯 하고 굳세고 곧으며, 마르고 마디가 드러나고, 骨이 많은 것을 有餘하다고 하지 않고, 肉이 적은 것을 不足하다 하지 않는다. 마르고 곧으며 닳고 긴 것이 木의 곧은 것 같으면서 色이 맑고 氣가 빼어나면 그 正을 얻은 것이다. 만약 허리가 치우치고 등이 薄하면 木의 좋은 것이 아니다. 木이 빼어나고 骨이 견고하며 말랐지만 가볍지 않고 온화하게 걷는 자는 木야흐로 棟梁이 되는 것이다. 木形이 木局을 얻으면 움직임과 멈춤이 溫柔하여 오래 거닐어도 마다⁴⁵⁾.

② 火形之人

피부색이 붉고, 面色이 아름답고, 齒根이 넓고, 面形이 뾰족하고 가름하며, 頭顱가 작고, 肩·背·髖·腦등과 關節肌肉의 發育이 良好하고, 手掌과 足部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다. 걸음걸이가 침착하고, 思想이 날카롭고, 性格이 조금하고, 걸을 때 신체가 흔들거리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신용이 결핍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과 분석능력이 뚜렷하고 명백하다. 『醫宗金鑑·四診心法要訣』에서 總結하면 “火形之人은 그 色이 赤에 부합하고 밝으면 귀하다. 五銳이란 것은 頭·額·鼻·面·口를 말하는 것이니, 불꽃끝의 예리함을 닮은 것이다. 五反五露이란 것은 五官이 밖으로 드러남을 말함이니, 火의 성질이 퍼서 밖으로 잘 드러나는 것을 닮은 것이다. 五偏五陋란 것은 五官이 반듯하지 못하고 추한 것이니, 火의 형체가 물건처럼 정하기 어려움을 닮은 것이다. 무릇 이 反露偏陋는 모두 火가 형체를 망친 것이니, 만약 정신이 맑고 밝으면, 이는 火之神을 얻음이요, 즉 도리어 귀함이다. 重氣란 것은 火가 陽에 속함을 취한 것이니 多氣이다. 輕財란 것은 火의 성질의 흠어짐이 많은 것을 닮은 것이다. 少信란 것은 火의 성질이 쉽게 변하는 것을 닮은 것이다. 多慮란 것은 火가 밝아서 사물을 비추는 것을 닮은 것이다. 好動이란 것은 火의 쓰임이 조용하지 않음을 닮은 것이다. 心急이란 것은 火의 성질이 빠름을 닮은 것이다. 가장 꺼리는 것은 정신이 흐린 것이고, 기는 탁한데 색이 왕성하면 서로 맞지 않으니, 모두 形體를 상한 것이다⁴⁶⁾.”이다. 火形之人은 쉽게 일찍 죽기도 하니, 春夏에 신체상태가 좋고, 秋冬에는 쉽게 사기에 감촉하여 병이 발생한다.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칭하기를 “장수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으니, 春夏에 능하고 秋冬에는 능하지 아니하여 秋冬에 感하여 病生한다.”라 하였다⁴⁷⁾.

39) 劉安 編著 / 안길환 編譯, 淮南子(上), 서울, 명문당, 2001, pp. 201-202.
40) 김수길·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유학당, 1998, pp. 558-559.
41) 劉安 編著 / 안길환 編譯, 淮南子(上), 서울, 명문당, 2001, pp. 194-195.
42) 陳淡林, 相理衡真,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 284.

43)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壺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p. 116-118.
44)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46-47.
45) 陳淡林, 相理衡真,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 284.
46)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壺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p. 118-120.
47)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火는 明을 主하니, 그 땅에서 드러낸 氣色이 혼잡하지 않음을 얻으면 精神이 어지럽지 않다. 그 形은 예리하고 아래는 풍부하며, 色은 탄 듯하고 氣는 마르며, 動靜이 일정치 않고 도리어 焦燥를 드러내며, 위는 화염처럼 뾰족하고 色은 赤하고 氣는 마르면 그 中을 얻은 것이다. 或 멀고 드러내며 뜨고 조급하면 불꽃이 지나쳐서 그런 것인가. 『風鑑』에 이르기를 하나가 드러난 것을 火라 하고, 얼굴이 깊은 것을 土라 하였다. 입술이 거리고 등이 드러난 것 같은 것은 火災이다. 火가 陰氣에서 發하면 紅하지만 건조하지 않다. 色이 윤택한 것은 이에 眞陽이니 火形이 火局을 얻으면 움직이고 멈춤이 풍족하고 예리하고, 오래 앉아도 구부리지 않는다⁴⁸⁾.

③ 土形之人

피부가 黃色이고, 얼굴은 원형이고, 頭顱가 비교적 크고, 肩背가 풍만하며 건강미가 있고, 腹部가 비교적 크고, 大腿와 小腿部의 肌肉이 건강하고, 手掌과 足部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작고, 전신의 肌肉이 풍만하고, 上下가 균형있다. 그 行爲와 性格 특장이 걸을 때 걸음걸이가 침착하고, 性格이 침착하고, 권세를 좇아 다루지 아니하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낸다. 『醫宗金鑑·四診心法要訣』에서 해석하여 이르기를 “土形之人은 그 色이 黃에 부합하고 밝으면 귀하다. 五圓이란 것은 土의 둥근 것을 닮은 것이다. 五實五厚은 土의 質이 實·厚함을 닮은 것이다. 五短은 土의 형태가 敦·短함을 닮은 것이다. 圓·實·厚·短의 다섯가지가 모두 온전하면 모두 土의 정상 형태이니 매우 귀하게 여긴다. 面圓·頭大·厚腹·美肩·美脰는 모두 土厚實의 형상이다. 사람이 신용이 있고, 행동이 여유있고, 마음이 편안하면, 모두 土德性之厚이다⁴⁹⁾.”이라 하였다. 土形之人은 秋冬에 身體狀況이 비교적 좋고 春夏에는 쉽게 사기를 받아서, 병이 발생한다.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이르기를 “秋冬에 능하되 春夏에 능하지 아니하니 春夏에 감촉되어 병이 발생한다.”라 하였다⁵⁰⁾.

土는 肥를 主하니, 그 五肥의 氣色이 혼잡하지 않음을 얻으면 精神이 어지럽지 않다. 그 形이 敦厚하고 속세의 때가 있으며, 臂가 드러나고 등이 드러내며, 얼굴이 깊고 허리가 드러내며, 形貌가 軒昂하고, 肉이 가볍고 뼈이 무거우며, 色黃하면 걸맞은 얻은 것이다. 혹 뼈이 무겁고 肉이 가벼우며, 神昏하고 無力하면 이에 오래 머무르는 土이다. 厚重한 자는 土가 厚하고 肉實하니 色은 紅潤하며 흐르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아 순수하게 안정되면 土가 편안하다. 活動이 마르지 않으면 土形이 土局을 얻은 것이니, 움직이고 멈춤에 돈독하게 머무르고 오래 누워도 편안하다⁵¹⁾.

④ 金形之人

피부색이 비교적 희고, 얼굴이 네모지고, 頭顱가 비교적 작고, 肩背의 골격이 작고, 腹部脂肪이 비교적 적고, 手掌과 足部가 비교적 작다. 행동이 경쾌·민첩하고, 품성이 청렴하고, 思想이 또렷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움직일 때는

강하면서 용맹스럽고 난폭하며, 지도력과 관리하는 재능이 있다. 『醫宗金鑑·四診心法要訣』에서는 “金形之人은 그 色이 하얀색에 합하고 깨끗한 것이 귀하다. 五正五方은 象金之形方正이다. 五朝는 金主骨하니 骨節貴內朝明堂이다. 五潤는 水에 저장하는 金을 형상화한 것이다. 치우친즉 바르지 못하고, 여위면 뼈가 드러나거나 들어가니, 곧 망할 형상이다. 거처하는 것이 고요하면서도 빠른 것은 金의 靜하면서 悍한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행동이 검소하면서도 강직한 것은 金의 潔하면서 剛한 성질을 형상화한 것이다. 위엄이 있으며 엄숙하게 한다는 것은 金의 肅殺하는 성질을 형상화 한 것이다. 작은 것을 겸하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르면서 아침에 윤택함을 말함이며, 비록 작으나 상하지 않는 것이 金의 바른 형상이다⁵²⁾.”라 하였다. 金形之人은 秋冬에 신체 상황이 비교적 좋고 春夏에는 쉽게 사기를 받아 병이 발생한다.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서 개괄하여 “가을·겨울에 능하고 봄·여름에 능하지 못하니 봄·여름에 사기를 받아 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⁵³⁾.

金은 方을 主하니, 그 五方의 氣色이 혼잡하지 않으면 精神이 혼잡하지 않다. 그 形이 方正하고 潔白하고, 肉이 가득차지 않으며, 뼈이 薄하지 않고, 骨은 견고하고 肉은 實하며, 陰陽을 속이지 않고 色白하고 氣剛하면 그 中을 얻은 것이다. 혹 눈썹이 촘촘하고 기대고 경사지며, 뼈이 적고 肉이 많으면 柔弱하여 堅強하지 않다. 眞金은 聲이 크고 그릇이 크니, 金形이 金局을 얻으면 움직임과 멈춤이 規模가 있고 앉아서 오래있어도 중후하다⁵⁴⁾.

⑤ 水形之人

피부색이 검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고, 頭顱는 비교적 크고, 臑部는 비교적 넓고, 肩部는 좁고, 腹部는 비교적 크고, 手足은 잘 움직이고, 걸을 때에 몸을 잘 흔들고, 背 및 尾骶部가 비교적 길고,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다루는데 성의가 없고 잘 속인다. 『醫宗金鑑·四診心法要訣』에서는 “水形之人은 그 색이 紫색에 합하고, 윤택하면 귀하다. 얼굴이 살찌고 평평하지 않은 것은 물의 표면이 넓고, 파도가 이는 것을 닮은 것이다. 五肥는 물의 형태가 넓고 큰 것을 닮은 것이다. 五嫩은 물의 성질이 번성하고 윤택함을 닮은 것이다. 五秀五滿는 물의 질이 滿徹(맑고 속이 흰히 보임)함을 닮은 것이다. 肥嫩之質은 보형시 몸을 흔드는 것이니, 물의 흘러 움직이면서 머무르지 않음을 닮은 것이다. 常不敬畏는 물의 성질이 아래로만 흐르고 위로는 흐르지 않는 것을 닮은 것이다. 內欺外恭는 물의 질이 안은 비어 차있지 않음을 닮은 것이다. 만약 神氣가 거칠고 濁하면 모두 가망없는 것을 나타낸다⁵⁵⁾.”라 하였다. 水形之人은 가을·겨울에 신체상황이 비교적 좋고 봄·여름에는 쉽게 사기를 받아 병이 발생한다.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이르길 “가을·겨울에 능하되 봄·여름에는 능하지 못하니 봄·여름에 사기를 받아 병이 발생한다.”이라 하였다⁵⁶⁾.

1994, pp. 47-48.
 48) 陳淡堃,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 285.
 49)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p. 120-121.
 50)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48-49.
 51) 陳淡堃,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 285.

52)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p. 122-123.
 53)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49-50.
 54) 陳淡堃,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 284.
 55) 윤창열·김용진·김정규,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pp. 123-125.
 56)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水는 圓을 주하니, 그 五圓의 氣色이 혼잡하니 淸을 얻으면 精神이 어지럽지 않다. 그 形이 圓하고 重하며, 厚하고 實하며, 등이 우뚝 솟고 배는 드리워지며, 물이 아래로 흐르는 듯 行하고, 배는 둥글고 허리도 둥글며, 色은 玄하고 氣는 高요하고, 肉은 重하고 骨은 輕하면 이것이 그 象상됨이다. 或 骨이 완만하고 肉이 흐르면 이를 일러 가지가 줄기를 補하지 못한다고 하니 疔瘡하여 지키는 바가 없는 것이다. 물 흐르듯이 行하고 曲折이 深源하면 水形이 水局을 얻은 것이니, 움직이고 멈춤이 寬容이 있고 오래 行해도 가볍지 않다⁵⁷⁾.

(2) 肥人瘦人

血實氣虛하면 肥하고, 氣實血虛하면 瘦하니, 肥한 자는 寒할 수 있으나 熱할 수 없고, 瘦한 자는 熱할 수 있으나 寒할 수 없다⁵⁸⁾.

形肥氣虛는 形體肥滿·膚白無華·精神不振·乏力氣短 등으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陽氣不足과 多濕多痰에 속한다. 이의 형성 원인은 肥甘厚味를 過食하면서도 운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인데, 肥甘滋膩한 食物을 과식하면 形體가 비만해지고 濕이 모여 痰을 이루게 되며 그 결과 痰多·眩暈·胸悶·肢麻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운동량이 매우 부족하면 氣血이 不暢하고 臟腑가 不堅하며 陽氣가 虛弱해짐으로 말미암아 神疲·氣短·乏力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가리켜 이른바 “肥人多濕”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肥滿한 形體의 환자가 頭痛眩暈·面赤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는 肝陽上亢과 痰火上擾에 의한 것이므로 中風證을 앓기가 쉽다⁵⁹⁾.

形瘦陰虛는 形體消瘦·胸廓狹窄·面色蒼黃·皮膚乾焦 등으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陰血不足과 內有虛火에 속한다. 이의 형성 원인은 鬱結된 情志가 化火하여 陰을 손상시키거나 久病으로 인하여 陰精이 耗散되었기 때문인데, 陰精이 不足한 즉 化燥生熱하기가 쉬워지므로 그에 따라 潮熱盜汗·顔紅·五心煩熱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古人들은 이를 가리켜 “瘦人多火”라고 하였다⁶⁰⁾. 이를 『內經』에 따라 좀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⁶¹⁾.

① 膏型之人

膏型之人의 形態特徵은 肌肉이 무르고, 皮膚가 潤澤하고, 배가 튀어나오도록 똥똥하여 脂肪이 처져있고,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

『靈樞·衛氣失常』에 개괄하여 이르기를 “살집이 부드럽고 피부가 이완된 것을 膏라 한다. 膏人은 多氣하고 피부가 이완되어 있으므로 하복부가 처지고 肉이 이완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膏人은 하복부가 처지고 肉이 이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 하였다. 膏人은 陽氣가 偏盛하고 寒邪에 대한 抵抗力이 비교적 强하고 그 病變이 熱證으로 많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靈樞·衛氣失常』에 이르기를 “膏人은 多氣한데 多氣者는 熱하므로 능히 寒을 견딜 수 있다.”고 하였으며 『類經·老壯少小脂膏肉瘦之別』에도 “膏

人은 多氣한데 氣는 陽이므로 熱하여 능히 寒을 견딜 수 있다.”라 하였다.

② 脂型之人

脂型之人의 形態特徵은 골격이 비교적 작고, 肌肉이 堅實하며, 皮下脂肪이 비교적 두텁고, 體形이 작아도 豐滿하다.

그 形態特徵을 『靈樞·衛氣失常』에서는 “살집이 굳고, 皮膚가 緊張된 자를 脂人이라 한다. 脂者는 비교적 身體의 用적이 작다. 脂人은 지방분이 있지만 身體의 用적이 작다.”라 하였다.

脂人은 氣血循行이 流暢하나 氣血虛衰의 傾向이 있어서 그 病變이 氣虛하여 寒하거나 血虛하여 內熱하기 쉽다. 『靈樞·衛氣失常』에서는 이것을 總括하여 “脂者는 肌肉이 굳으며 皮膚의 살결이 거칠은 사람은 寒하고 살결이 섬세한 사람은 熱하다. 脂者는 血清하고 氣가 滯少하여 身體의 用적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였다. 『類經·老壯少小脂膏肉瘦之別』에서도 이것을 가리켜 “脂者는 血清하고 氣가 滯少하여 身體의 用적이 크지 않다. 脂人은 肥盛하지만 血은 肉人 만큼 많지 않고 氣의 흐름이 원활하지만 膏人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③ 肉型之人

肉型之人의 體型特徵은 지방질이 비교적 많고, 形體가 살지고 충실하며, 피부와 살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그 形態特徵을 『靈樞·衛氣失常』에서는 “肉과 皮膚가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는 자를 肉人이라 한다. 肉者는 身體가 충실하고 用적이 크다. 肉人은 身體 上下의 用적이 모두 크다.”라 하였다.

肉人은 血多하여 氣質이 和平하고 쉽게 邪氣에 傷하지 않는다. 『靈樞·衛氣失常』에서 이것을 總結하여 “肉人은 多血하여 形體가 充實하고 균형 잡혀 있다.”라 하였으며 『類經·老壯少小脂膏肉瘦之別』에서는 “肉人은 多血하고 血은 形을 養하므로 形體가 충실하고 氣質이 平하다.”고 하였다.

④ 瘦人

瘦人의 體型과 性格特徵은 形體가 수척하고, 피부가 희며, 肌肉이 얇고 약하다. 口脣이 비교적 얇고, 말이 많고 시원스럽거나(快語), 말소리가 비교적 약하다.

그 形體 특징을 『靈樞·逆順肥瘦』에서는 “瘦人은 피부도 얇고 血色이 적으며 살이 찌지 않고 입술이 얇으며 음성에 무게가 없다. 이런 사람은 血이 淸하고 氣가 滯하므로 脫氣하기 쉽고 血이 손상 받기 쉽다. 이런 사람에게 刺針할 때는 淺刺하고 또한 빨리 發針해야 한다.”고 개괄하고 있다. 『醫學準繩六要·望法』에는 이르기를 “사람의 큰 몸은 形이고 形속에 가득한 것은 氣다. 形이 氣를 勝하면 요절하게 되는데 肥하고 蒼白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氣가 形을 勝하면 長壽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색이 검으며 몸이 마르고 정신이 뚜렷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形體가 盛하여 有餘하면 邪氣가 實하게 되고 消瘦하여 不足하게 되면 正氣가 虛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瘦人의 形態特徵이 보여주는 대로 瘦人은 氣血循行이 流暢하다. 瘦하고 피부색이 흰 者는 氣血虛衰하고 耗損하는 病證이 쉽게 발생하므로 이런 類의 환자를 治療할 때는 功法이나 耗氣傷血의 方藥을 慎用하여야 한다. 瘦하고 피부색이 검은자는 쉽게 火熱하고 陰虛한 病證이 나타나므로 이런 類의 환자를 治療할

1994, p. 50.

57) 陳淡生,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pp. 284-285.

58) 林慎庵, 四診抉微(中國醫學大成續集 十),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5.

59) 이봉교·박영배·김태희, 漢方診斷學, 서울, 성보사, 1992, pp. 51-52.

60) 이봉교·박영배·김태희, 漢方診斷學, 서울, 성보사, 1992, pp. 52-53.

61)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56-58.

때는 溫燥傷陰한 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醫學入門·觀形察色』에 이르기를 “肥하고 피부색이 흰 사람은 濕痰이 많고, 피부색이 검으면서 瘦한 사람은 火熱이 많다. 或, 肥하고 色이 검은 사람이나 瘦하고 色이 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때는 形을 좇을 것인지 色을 좇을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결 론

形이라는 것은 神의 體이고, 神이라는 것은 形의 用이다. 形의 肥瘦, 營衛血氣의 盛衰는 모두 人神에 의지한다. 形은 言動視聽, 俊醜美惡, 勇怯愚智, 死生安否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形은 陰으로써 말을 한 것이나 실제로는 精血이고, 이를 氣가 채운다. 形이 氣를 이기는 자는 요절하니 肥白한 것이다. 氣가 形을 이기는 자는 장수하니 黑하고 살이 마르며 神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養生을 잘하는 자는 먼저 形을 治하면서 神明을 治하여서 神明의 宅을 삼고, 治病을 잘하는 자는 形으로써 興復의 기반을 삼는다

形이 強하면 骨格粗大·胸廓寬厚·肌肉充實·皮膚潤澤하니 內臟이 堅實하고 氣血이 旺盛하고 抵抗力이 強하여 病에 걸렸도 예후가 좋다. 形이 弱하면 骨格細小·胸廓狹窄·肌肉消瘦·皮膚枯槁하니 內臟이 脆弱하고 氣血이 不足한 것으로 抵抗力이 弱하여 病에 걸리면 예후가 불량하다.

形은 天地人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天時는 시간의 흐름으로 사람의 老少에 따라 그 정상적인 생리현상이 다르다. 地利는 東西南北의 四方의 五行 특성에 따라 사람의 형상이 다르고, 지

역의 地形·地勢에 따라 특징적인 形이 나타난다. 사람이 태어남에 특정 五行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니 이를 五行人이라 한다. 五行人에서는 五行에 따른 형태·성격·氣色을 제시하였으니 形色의 기준이 된다.

참 고 문 헌

1. 王弼 著, 임채우 譯. 왕필의 노자. 서울, 예문서원, 2000.
2. 김용남 譯. 국역 경약전서. 서울, 一中社, 1992.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4.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薈萃. 中國, 重慶出版社, 1988.
5. 陳夢雷, 蔣延錫 編著. 圖書集成醫部全錄. 서울, 대성출판사, 1992.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7. 張樹生, 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8. 김의철. 觀相高典. 서울, 동반인, 1999.
9. 陳淡堃. 相理衡眞. 中國, 武陵出版有限公司, 1992.
10. 윤창열, 김용진, 김정규.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대전, 주민출판사, 2001.
11. 이정래. 太韓醫學全集(一). 서울, 제일문화사, 1989.
12.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漢方診斷學. 서울, 성보사, 1992.
13. 오현리. 정통오행상법보감. 서울, 동학사, 2001.
14. 김수길, 윤상철 譯. 五行大義. 서울, 대유학당, 1998.
15. 劉安 編著, 안길환 編譯. 淮南子(上). 서울, 명문당, 2001.
16. 林慎庵. 四診抉微(中國醫學大成續集 十).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